

국 어

<총 평>

연도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21년		4(↓1)	10	4(↓1)	2
2020년		5	10	3	2

2021년 국가직 9급 시험은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2020년과 마찬가지로 독해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독해 실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2~3년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제경향에 해당합니다.

문제 유형별 비중은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법/규범은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단어의 문맥적 의미, 자연스러운 문장, 용언의 활용 등 기존의 기출 유형을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지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비문학/독해는 설명 방식, 전개 순서, 추론하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무려 10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문학은 1문제가 늘어 총 4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어휘/한자는 예상대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자 성어의 경우 기출 한자 성어가 출제되었습니다.

합격선은 80점 전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독해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므로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문법/규범뿐만 아니라 독해/문학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 형태론, 의미론, 한글 맞춤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및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 단기간에 실력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 유형별 (추론하기, 서술방식 찾기 등)로 매일 2~3문제씩 풀면서 타이머 등을 이용하여 시간 관리를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문학**의 경우 매일 2~3문제씩 풀고 작품 공부해 해야 합니다. 시와 소설을 골고루 학습하고 고전 문학 작품의 경우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 작품들도 함께 학습하도록 합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 꾸준히 2~3문제가 출제되므로 매일 10~2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7.

기미진 울림

문 1.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란
- ③ 오뎅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 ④ 차간(車間), 환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두음법칙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X] 꼭지점(X) → 꼭짓점(O)

'꼭짓점'에서 '꼭지'는 고유어, '점(點)'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합니다.

② [O] '량/양'은 한자어 뒤에서는 '량'으로 적고,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양'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흡입(吸入)+량(量)'과 '구름+양(量)'으로 적습니다. '란/남'은 한자어 뒤에서는 '란'으로 적고,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남'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정답(正答)+란(欄)'과 '칼럼+남(欄)'으로 적습니다.

③ [X] 딱다구리(X) → 딱따구리(O)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딱따구리가 아닌 '딱따구리가 맞는 표기입니다.

④ [X] 환병(X) → 화병(O)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 사이시옷을 적는 것은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횡수(數回)'뿐입니다. '환병(火病)'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문 2. ㉠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싼다.

- ①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 ② 사람들은 붓짐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
- ③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싸 보통이를 들고 있다.
- ④ 내일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을 미리 싸 두어야.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의 문맥적 의미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의 '싸다'는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돌려 말다.'의 뜻입니다.

① [X] '어떤 물체의 주위를 가리거나 막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②, ④ [X] '어떤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좋게 상자나 가방 따위에 넣거나 종이나 천, 끈 따위를 이용해서 꾸리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③ [O] '싸다'는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돌려 말다.'의 뜻입니다.

문 3.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날씨가 선선히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 ②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 ④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어법의 올바른 사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읽히다'는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② [X] 중의적인 표현이 쓰였습니다. '속독(速讀)'은 '책 따위를 빠른 속도로 읽음.'이라는 뜻으로 뒤에 오는 '읽는'과 의미가 중복됩니다. '책을 빠르게 읽는 것은' 혹은 '책을 속독하는 것은'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 [X] '찾다'는 주로 '~을 찾다와 같이 씁니다. '찾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누락되어 있는 문장이므로, '~ 직접 책임자를 찾기로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④ [X] 병렬 구조가 옳지 않습니다.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은 문법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는 시화전의 홍보와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또는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 4.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 빛 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 ①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빛 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자료를 인용하여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④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1문장에 빛 공해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X] 1문장에서 빛 공해의 요인으로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빛 공해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O]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를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 [O] 마지막 문장에 빛 공해의 악영향으로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 5.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 지은 것은?

용언의 불규칙활용은 크게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 ① 걸음이 빠름 꽃이 노랗
② 잔치를 치름 공부를 함
③ 라면이 불음 합격을 바람
④ 우물물을 푼 목적지에 이름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X] ‘빠름’의 기본형인 ‘빠르다’는 어간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르’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노람’의 기본형인 ‘노랄다’는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 ‘-아/-어’가 ‘-에/-에’로 변하는 ‘ㅎ’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② [X] ‘치름’의 기본형인 ‘치르다’는 어간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가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입니다.
‘함’의 기본형인 ‘하다’는 어간이 ‘하’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야’가 ‘여’로 바뀌는 ‘여’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 어미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③ [X] ‘불음’의 기본형인 ‘불다’는 어간의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르’로 바뀌어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바람’의 기본형인 ‘바라다’는 어간 ‘바라’ 뒤에 모음 어미 ‘-아’가 결합할 때 ‘가’가 줄어드는 ‘바라 - 바랸다’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④ [O] ‘푼’의 기본형인 ‘푼다’는 어간의 ‘누’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우’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이름’의 기본형인 ‘이르다[쪼]’는 어간 ‘이르-’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어미

‘어’가 ‘라’로 바뀌는 ‘라’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문 6.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二月八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入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훈 아으 滿春 들윗고지여
늑늑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니몬 넷 나롤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 작자 미상, 『動動』에서 -

- ① ㉠은 ‘견’을 의미한다.
② ㉡은 ‘모습을’을 의미한다.
③ ㉢은 ‘잇어’를 의미한다.
④ ㉣은 ‘무심하구나’를 의미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려 가요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고려 시대의 속요이며,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를 주제로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달거리 형식으로 노래하였습니다.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으며, <악학계범>에 한글로 실려 있습니다.
④ [X] ㉣은 ‘무엇 때문에’를 의미합니다. ‘므슴’은 ‘무엇의 옛말입니다.
[현대어 풀이]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견 등불 같구나.
그대는 만인을 비취실 모습이시도다. 아으 동동다리
3월 지나며 핀 아으 늦봄의 진달래꽃 같은 임이여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지니셨구나. 아으 동동다리
4월 아니 ㉢잇어 아아 오시는구나 꾀고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님(나의 남)은 예전의 나를 잊고 계시는 겁니까? 아으 동동다리

문 7.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분은 냉혹한 현실(現室)을 잘 견뎌 냈다.
② 첫 손님을 야박(野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③ 그에게서 타고난 승부 근성(謹性)이 느껴진다.
④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賃用)되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기타 한자 어휘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X]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라는 뜻의 ‘현실’은 ‘現實(現 나타날 현, 實 열매 실)’로 표기합니다. ‘現室’은 없는 표기입니다.
② [O] ‘아말차고 인정이 없다.’라는 뜻의 ‘야박’은 ‘野薄(野 들 야, 薄 넓음 박)’으로 표기합니다.
③ [X]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을 뜻하는 ‘근성’은 ‘根性(根 뿌리 근, 性 성품 성)’으로 표기합니다. ‘謹性’은 없는 표기입니다.
④ [X] ‘사람을 골라서 씌.’를 뜻하는 ‘채용’은 ‘採用(採 쉼 채, 用 쓸 용)’으로 표기합니다. ‘賃用(賃 빌 채, 用 쓸 용)’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씌’라는 뜻입니다.

문 8. 다음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오늘의 토의 주제는 '통일 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입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남한과 북한의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를 분석한 결과, ... (중략) ... 앞으로도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이로써 최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 박사님의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 박사: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로 구성된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공통의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을 만들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A: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①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말하기와 듣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O] 제시된 토의는 '통일 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이라는 학술적인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② [X] 사회자는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순서 진행을 하고 있을 뿐,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O] 발표자인 최 교수는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정 박사는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④ [O] 청중 A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토의 주제인 '통일 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 9. ㉠ ~ ㉢은 '공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을 적용한 B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  
 ㉣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 ① ㉠ A: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 정말 멋있었어."  
B: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② ㉡ A: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B: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 ③ ㉢ A: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 가니?"  
B: "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 크게 말해 줄래?"
- ④ ㉣ A: "가원아, 경희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사주는 것은 어때?"  
B: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경희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말하기와 듣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 ① [O] ㉠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겸양의 격률'입니다. B는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O] ㉡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는 '요령의 격률'입니다. B는 늦어서 미안해하는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와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X] ㉢은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는 '관용의 격률'입니다. B는 "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이 잘 안 들렸는데~"와 같이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을 적용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O] ㉣은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동의를 격률'입니다. B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경희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문 10.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하버마스에게 공공 영역은 일반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형성하는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 도시의 살롱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을 찾았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으나, 공공 토론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적어도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업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되었다. 공공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많은 것을 약속한 미디어는 이제 민주주의 문제의 일부로 변해 버린 것이다.

- ①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 ②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
- ③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 ④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X] 2문단의 '적어도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를 통해 살롱 문화에서 참석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 [X] 3문단의 '공공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와 4문단의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를 통해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 상업적 광고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지만 공익 광고의 증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③ [X] 3문단의 '현대 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면 국제 사회의 공공 영역이 공허해질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O] 4문단의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1. ㉠ ~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 그런데 눈은 한 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이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③ [O] 제시된 문장은 폭설, 즉 대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보면, ㉠ 또는 ㉡이 이어지고 있는데 ㉠은 일반적인 '눈의 위력'을 제시하고 있고, ㉡은 첫 문장에서 언급한 '대설'과 관련하여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 뒤에는 ㉡이 적절합니다. 또한 ㉡에서 '주의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어서 ㉢과 ㉣에서 '경보'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눈의 위력'이 나오고 ㉤에서 '이뿐만 아니라'로 이어지면서 '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③ ㉡ - ㉢ - ㉠ - ㉤이 옳습니다.

문 12.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 ① 영어의 '쌀(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 ②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
- ③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 ④ 우리나라는 수박(watermelon)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melon)'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언어와 사고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제시문은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와 사고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① [O] 우리말에 '쌀'에 관해 다양한 명칭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1문단의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의 사례로 적절합니다.

② [O]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면, 이는 '파랗다'라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문 15. (가) ~ (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는데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헛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위흐는이다
- (나)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다)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 업슨 이 몸이 분별 업시 늘그리라
- (라) 농암(籠巖)에 올라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이 변흔들 산천이썬 가셀가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 某丘)이 어제 본 듯흐예라

- ① (가)는 고사의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는 의태적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라)는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가)는 박인로의 시조로, 고사 인용(육적의 회골 고사)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회골 고사: 중국 삼국 시대 오나라에 육적이라는 자가 있었다. 여섯 살 때, 원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그가 내놓은 굴 중에서 세 개를 몰래 품속에 넣었다가 하직 인사를 할 때 그 굴이 굴러 나와 발각이 되었다. 그때 원술이 사연을 물으니, 육적은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려 하였다 하므로, 모두 그의 효심에 감격하였다 고 한다. '회골(懷橘)'은 '굴을 품다'라는 의미이다.
- ② [O] (나)는 황진이 시조로, 의태적 심상(서리서리, 구뵤구뵤)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서리서리: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헝글어지지 아니하도록 동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  
구뵤구뵤(굽이굽이):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
- ③ [O] (다)는 성혼의 시조로,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초장과 중장에서 '~업슨 ~이오 ~업슨 ~(이)로다'의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④ [X] (라)는 이현보의 시조로 '고향에 돌아온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사(人事)이 변흔들 산천이썬 가셀가(사람의 일이 변흔들 산천이야 변할쏘나)'를 통해 자연과의 대조는 드러내고 있으나,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한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고향의 바위인 농암(귀머거리 바위)에 오르니 늙은이의 눈이 오히려 밝게 보이고 농암 앞을 흐르는 물과 언덕들이 어제 본 듯하다고 하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기쁨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겹쳐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걸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큼털털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 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 이상, 「권태」에서 -

- ①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글쓴이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수필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이상의 <권태>입니다. 이 작품은 1936년 일제 강점 하에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  
기 위해 갔던 동경에서 쓴 수필입니다.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촌 생활과 자연  
의 권태로움을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① [O] 대상의 행위(소가 반추하는 모습)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  
균 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가 투사되고 있습니다.  
※ 투사: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  
되는 일
  - ② [X] 과거의 삶을 회상하거나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X]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거나, 글쓴이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④ [X]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 17. 다음 글에서 ‘황거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찌먼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팽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 (중략) …

경찰은 발포를 - 다행히 공포였지만 -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집행도 일시 중단되었었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집행 방해에다, 산주의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 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 나오질 못했다. 쌍말로 씌어 갔다.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사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 김정환, 「산거죽」에서 -

- ① 同病相憐                      ② 束手無策
- ③ 自家撞着                      ④ 輾轉反側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김정환의 <산거죽>은 1971년에 발표된 소설로, 가난하고 힘없는 한 노인이 마을의 식수권을 쟁취하기는 과정을 서사화한 작품입니다.

- ① [X] 同病相憐(한가지 동, 병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② [O] 束手無策(뭍을 속, 손 수, 없을 무, 꾀 책)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시문에서 '황거칠 씨는 식수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고 석방을 조건으로 타협안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마삿등'이 물 없는 지대가 될 것을 알면서도 타협안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가장 잘 부합합니다.
- ③ [X] 自家撞着(스스로 자, 집 가, 칠 당, 붙을 착)은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④ [X] 輾轉反側(구를 전, 구를 전, 돌이킬 반, 곁 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문 18.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쉬임 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 조병화, 「나무의 철학」 -

- ① 문답법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수사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조병화의 <나무의 철학>은 한결같은 나무의 모습을 통해 삶의 자세에 대한 통찰을 전하고 있는 시입니다.

- ① [X]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는가'에서 의문 형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설의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화자가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설의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
- ② [X] '반어법'은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을 말하며 이 작품은 반어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삶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낼 뿐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 ③ [X] '나무'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로 의인화하였으나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 목가적: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것.
- ④ [O]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는 동안 흔들리면서도 끊임없이, 한결같이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가야한다'는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는 그 민족 역사의 누적일 뿐 아니라 그 누적된 민족사의 정수로서 이루어진 혼의 상징이니, 진실로 살아 있는 민족적 신상(神像)은 이를 두고 달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성력(誠力)과 정혼(精魂)의 결정으로 그 우수한 질과 희귀한 양에서無比(無比)의 보(寶)가 된 자이다. 그러므로 국보 문화재는 곧 민족 전체의 것이요, 민족을 결속하는 정신적 유대로서 민족의 힘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그 과거 문화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요, (㉠)는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된다.

- 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 ②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 ③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
- ④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괄호 안에는 국보 문화재의 강력한 힘을 밝히는 예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 ① [X]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은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 ② [X]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라는 격언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지식과 달리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 ③ [X]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라는 속담은 사람은 걸만 보고 알 수 없고 오래 겪어 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④ [O]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영국 최고의 작가로 극찬 받는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이 국보 문화재로서 영국에서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합니다.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의 개념은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학과 동물학의 종, 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인 '사과', '개', '나무' 같은 것 역시 분류 개념인데,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또한,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이마에 뿔이 달린 말의 일종임'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기에 '유니콘'은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더 무거움', '더 짧음' 등과 같은 비교 개념은 분류 개념보다 설명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분류 개념처럼 자연의 사실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분류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상 A의 무게가 대상 B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면, 대상 B의 무게가 대상 A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무거움' 같은 비교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량 개념은 비교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에는 두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험적 규칙과 물리량의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량 개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량 개념은 과학의 언어를 수많은 비교 개념 대신 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 ①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 ② '용(龍)'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 ③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1문단의 '식물학과 동물학의 중, 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를 통해 '나비'는 '분류 개념'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를 통해 하위 개념인 '호랑나비'는 상위 개념인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1문단의 '~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이마에 뿔이 달린 말의 일종임'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기에 '유니콘'은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를 통해 '용' 또한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O] 2문단 마지막에서 '~ 비교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나 '고양이'는 1문단의 '식물학과 동물학의 ~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에 따라 분류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O] 3문단의 '정량 개념은 과학의 언어를 수많은 비교 개념 대신 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에 따라 물리량을 측정하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